



# 한국러시아문학회보

ВЕСТНИК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NEWSLETTER

통권 제58호  
2020 July Vol.58

## Contents

|                    |   |
|--------------------|---|
| 코로나 시대의 유학         | 1 |
|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 4 |
| 제16대 임원진 및 편집위원 명단 | 4 |
| 학회지 발간             | 5 |
| 신간소개               | 5 |
| 공지사항               | 8 |
| 회비납부               | 8 |

발행일 2020. 7. 31

발행처 한국러시아문학회

발행인 변현태

## 코로나 시대의 유학

우선 권두언을 기대하셨던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태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권두언을 대신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한 외국의 대학원 사정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기획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사정은 회원들께서 여러 통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궁금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문학을 전공하고자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 두 예비연구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심경은 어떠한지 그 경험담을 공유합니다. 현 상황을 힘들게 버티고 있는 미래의 회원들의 생생한 상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준엄한 시기를 함께 지내고 있는 모든 학회원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하는 2020년 미국의 대학원생활

김 연 이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박사과정)

연초만 해도 태평양 너머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제로 여겨졌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학 생활을 비롯한 미국 사회 전반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기 시작한 것은 올해 3월 초부터입니다. 이때 저희 학교도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전환했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격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대형 마켓의 매대가 텅텅 비었고,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도시의 제반 시설들이 폐쇄되었습니다. 경찰 헬기가 나타나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L.A. 시내에 군대가 들어올 거라는 흉흉한 소문도 떠돌았습니다. 대다수의 미국인 학생들이 학기 중에 가족들에게 돌아갔고, 많은 외국인 학생들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학생 비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일시적인 면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시에 시행된 이 면제 규정은 학교에서 T.A.(Teaching Assistant) 나 A.L.(Assistant Lecturer)로 일하고 있었던 외국인 대학원생들에게도 후하게 적용되어서, 저 역시 T.A.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초에 한국으로 돌아와 남은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대학원 수업 하나를 듣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이른바 디지털 인문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온라인 학습 환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시도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Parusall"이라는 온라인 공동 독서 플랫폼입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다룰 텍스트를 PDF 파일로 편집해서 여기에 업로드하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강조 표시를 하고 코멘트를 달아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듯이 텍스트의 내용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격리 상태에서 많은 독서량을 소화해야 하는 대학원생으로서 모두 함께 텍스트를 읽는 환경에 적응하는 재미도 있었고, 교수가 특별히 강조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을 중심으로 어려운 텍스트를 읽을 수 있으니 독서도 한결 쉬워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새벽 6시에 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수업 시간 직전에 가장 활기를 띠는 “Parull” 토론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차 문제는 제가 계절 학기를 들 때에도 마찬가지로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제가 수강해야 했던 독일어 수업의 경우 교수님이 줌 레코딩 기능을 사용할 줄 몰라서 일주일에 두 번 새벽 4시에 수업을 들으며 고통 받아야 했습니다.

봄 학기가 마무리되고 5월 말에는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의 백인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압박하여 살해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미국 전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격화되었고, 대학가에서도 인종 차별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저희 과의 대학원생들도 시위대의 행진에 참여했고, 개인 SNS를 통해 그 규모와 감동을 전했습니다. 과차원에서 시위대의 활동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줌 미팅이 꾸러졌고 논쟁적인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슬라브어문학이라는 제한된 필드 안에서 문헌학자들의 집단으로 정의되는 우리 과가 정치적인 이슈에 관해 특정 집단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여야 하는가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영미권의 대표적인 바호친 학자로 알려져 있는 게리 사울 모슨의 인터뷰를 기사화 한 “폭력 시위와 인텔리겐치아(Violent Protest and the Intelligentsia)”라는 글도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슨은 미국의 좌파 자유주의자들이 폭력 시위를 묵과하는 논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모슨의 견해가 저희 과를 비롯한 영미권 슬라브어문학계를 대표하는 입장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견인한 전례 없는 시국에 자유주의적 가치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미국 지식인들 사이의 첨예한 이슈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과 결합된 유례없는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가 미국 대학 생활에 미친 가장 큰 영향들 중 하나는 7월 6일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학생 비자 관련 수정 조치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가을 학기부터 외국인 학생들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대면 수업을 수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학생 비자를 잃게 되어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입국이 거부됩니다. 이 결정은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 영역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노선을 같이 하는 것으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한 대학들의 결정을 번복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조치가 대학들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7월 8일 하버드 대학과 MIT에서 각각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저희 학교를 포함한 59개의 대학들이 지지 소견서를 제출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그보다 조금 늦은 13일, 서부의 대학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20개의 대학들도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들은 14일 연방 정부가 수정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일단락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7월 19일)도 미국 학생 비자와 관련하여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T.A.나 A.L.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대학원생들의 경우 미국 밖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저 역시도 다음 학기에 T.A. 활동이 계획되어 있어 L.A.로 돌아갈 것을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학생 비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문제가 시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학기 동안 학교가 폐쇄되어 도서관도 이용하지 못할 것이고 자취방에 종일 격리되어 있어야 할 것이 분명한데도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서울 면적의 두 배쯤 되는 L.A. 카운티 안에서 일일 확진자수가 3,000명에 달하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공포감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휴학을 하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이처럼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수와 11월 대선을 앞두고 격화되고 있는 정치적 갈등, 외국인 이민자들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행보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 코로나와 러시아유학

이 종 현 (러시아국립인문대학교 박사과정)

*Что войны, что чума? - конец им виден скорый,  
- Ахматова*

저는 2월 중순에 집안일 때문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러시아의 입국제한 조치 때문에 모스크바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친구들은 콜레라를 피해 불디노에서 머무르며 창작의 열정을 불태웠던 푸시킨처럼 ‘서울의 봄’을 지내며 학위논문을 완성해서 돌아오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학위논문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고 ‘서울의 가을’까지 겪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의 창궐 때문에 러시아 유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적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처럼 본국으로 돌아간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지도 않았습니다. 또, 지난 6개월 동안 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것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스크바에서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갔다 하더라도 논문을 마쳤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들도 대부분 피디에프 파일로 가지고 있어서 ‘자료의 부족’을 탓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도, 모스크바에도 학업의 정진을 방해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차라리 논문에서 잠시 손을 놓아 좋은 점들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 논문의 주제나 방법론에 대해 선생님들, 친구들과 한국어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학생’이면 당연히 현지인들과 현지어로 학문적 토론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썼던 논문의 일부를 우리말로 번역해 러시아문학을 전공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문이론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할지, 러시아어를 모르는 사람은 번역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등 러시아인들과 논의할 때는 고민하지 않았을 것들을 숙고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논문을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스쳐지나갔던 것, 어중간하게 이해했던 것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찬찬히 읽어봐야 할 책들을 친구들과 읽으면서 논문에 무엇을 보충할지, 설명을 어떻게 고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책 한 권을 읽는 세미나는 ‘엄밀함’의 태도를 흉내 내며 사실은 논문의 완성을 미루는 것

이기도 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읽을 수 없는 책들을 통독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점들을 꼽다보니 그다지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첫째, 러시아에서 일상적으로 친숙했던 것들을 점점 잊게 됩니다. 모스크바에서 반주로 즐겨마시던, 250ml짜리 보드카를 구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치쿠시카, 티쿠시카, 투쿠시카... ‘쿠시카’ 앞에 이런 저런 말을 붙여보다가 인터넷에 검색해서야 답을 찾아냈습니다. 체쿠시카! 눈 감고도 다니던 모스크바 거리들의 이름과 위치가 떠오르지 않아 가끔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기도 합니다. 4월에 러시아 친구가 ‘너도 곧 러시아어와 우리를 잊게 되겠지’라고 말했는데 예언이 실현되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합니다.

둘째, 헛돈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 올 때 겨울옷만 가져온 바람에 여름옷을 새로 사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까운 것은 모스크바의 아파트에 모든 짐을 두고 왔기 때문에 매달 내야 하는 월세와 공과금입니다. 빈 채로 곰팡이가 핀 아파트가 꿈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지내는 덕분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번 돈은 모두 모스크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본국으로 송금하는 이주노동자의 기분이 이런 것일까요?

셋째, 모스크바와 서울 사이 어딘가 공중에 매달려있는 마음입니다. 학적은 모스크바에 두고 있지만 몸은 서울에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아무런 학업의 결과를 보내지 못해도 ‘러시아 유학생’이라는 허울로 서울의 게으른 삶을 정당화합니다. 제 무위도식의 소치라고 여기기보다는 ‘욕망은 배치의 문제’라며 모스크바와 서울 사이의 애매한 배치를 탓하게 됩니다. 어떤 일만남을 시작하려 해도 ‘어차피 곧 모스크바에 돌아가게 될 텐데...’라며 재빨리 단념해 버립니다. 「세 자매」의 이리나처럼 ‘모스크바로!’라는 말을 헛되이 세 번 되뇌곤 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지낼 때는 ‘유학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마냥 즐거웠습니다. 서둘러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여러 활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 있게 되니 비로소 유학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2월 서울에서 스케일링을 했을 때에는 6개월 뒤에 러시아에서 시술해야 하나 걱정했지만 어느새 같은 치과의 예약을 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역병의 끝이 곧 보이기를 기원합니다.

##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 2020년 상반기에는 COVID-19로 인해 정례학술논문발표회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아쉽지만 학회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추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회원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개최 여부, 대면/비대면 등 그 형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6대 임원진 및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편집위원 명단

### < 제16대 한국러시아문학회 임원진 >

| 직책    | 성명    | 소속    |      |
|-------|-------|-------|------|
| 회장    | 변 현 태 | 서울대   |      |
| 부회장   | 심 성 보 | 건국대   |      |
|       | 김 진 규 | 고려대   |      |
| 감사    | 서 상 범 | 부산외대  |      |
| 총무이사  | 서 광 진 | 경북대   |      |
| 총무간사  | 안 대 섭 | 고려대   |      |
| 편집위원장 | 이 명 현 | 고려대   |      |
| 편집간사  | 이 선 영 | 고려대   |      |
| 학술이사  | 문학    | 김 수 환 | 한국외대 |
|       | 어학    | 권 경 준 | 성균관대 |
|       | 문화    | 조 규 연 | 중앙대  |
| 이사    | 김 정 일 | 경북대   |      |
|       | 김 태 옥 | 충북대   |      |
|       | 백 승 무 | 한림대   |      |
|       | 백 용 식 | 충북대   |      |
|       | 이 강 은 | 경북대   |      |
|       | 이 규 환 | 대구대   |      |
|       | 이 기 주 | 안양대   |      |
|       | 이 남 경 | 고려대   |      |
|       | 윤 새 라 | 울산과기원 |      |
|       | 최 진 희 | 고려대   |      |

### < 제16대 한국러시아문학회 편집위원 >

| 직책     | 성명    | 소속    | 전공  |
|--------|-------|-------|-----|
| 편집위원장  | 이 명 현 | 고려대   | 문학  |
| 학술편집위원 | 김 수 환 | 한국외대  | 문학  |
|        | 권 경 준 | 성균관대  | 어학  |
|        | 조 규 연 | 중앙대   | 문화  |
|        | 김 보 라 | 경상대   | 어학  |
| 편집위원   | 김 숙 영 | UCLA  | 문화  |
|        | 이 희 원 | 상명대   | 문화  |
|        | 백 용 식 | 충북대   | 문학  |
|        | 윤 새 라 | 울산과기원 | 문학  |
|        | 이 기 주 | 안양대   | 문학  |
|        | 이 문 영 | 서울대   | 문학  |
|        | 홍 택 규 | 한림대   | 어학  |
|        | 이 선 우 | 전북대   | 정치학 |
|        | 정 세 진 | 한양대   | 역사학 |
|        | 편집간사  | 이 선 영 | 고려대 |

## 학회지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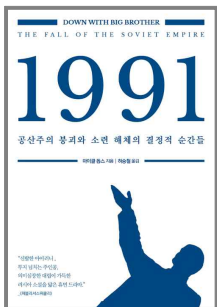
▶ 2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8집이 발간되었으며, 문학 및 지역학 분야의 논문 6편이 수록되었습니다. 김홍중 회원(중앙대)의 [메타픽션으로서의 『퐁나킨 실종사건』과 1960년대 소련 대중문학], 서광진 회원(경북대)의 [18세기 러시아 문학과 웃음: [『오만가지』(Всякая Всячина)와 『수벌』(Трутень)에서의 풍자 논쟁을 중심으로], 이희원 회원(상명대)의 [동슬라브 신화의 현대적 변용과 재의미화: 영화 <그는 용>의 용의 형성과 여성성]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 6편이 수록되었습니다.

▶ 5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9집이 발간되었으며, 문학 분야 논문 5편이 수록되었습니다. 강수경 회원(부산대)의 [철도노동조합기관지 『경적』(Гудок)을 중심으로], 손재은 회원(고려대)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그루센카를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5편이 수록되었습니다.

▶ 2020년 8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0집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 신간소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출간된 책을 인터넷 교보문고 및 출판사 제공 서평과 함께 올립니다.)



### 1. 『1991: 공산주의 종말과 소련 해체의 결정적 순간들』(마이클 돕스 지음, 허승철 옮김, 모던아카이브 2020년 3월 14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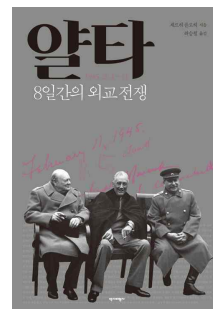
2021년 내년이면 30주기가 되는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해체 선언으로 한때 미국과

함께 세계의 운명을 좌우한 소련 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이 주제를 장기간 취재한 독보적 언론인 출신 작가 마이클 돕스는 근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만한 공산주의 붕괴와 소련 해체가 진행된 12년을 672쪽 분량의 <1991>에 담았다.

<1945>, <1962>에 이은 '냉전 3부작' 완간작이기도 한 이 책에서 저자는 소련의 베트남전이 된 1979년 아프간 침공을 시작으로 보수파의 1991년 8월 쿠데타에 이은 고르바초프의 소련 해체 선언까지 제국에 균열을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을 인물의 특징과 맥락,

짧지만 의미심장한 대화와 역사적 평가를 적시 적소에 배치해서 깊이 있으면서도 흥미진진한 또 하나의 역작을 냈다.

이번 책은 특히 구소련 전문가이자 前 우크라이나 대사로 일한 허승철 고려대학교 교수가 번역하고 사건 관련 고화질 사진과 이미지 27장을 삽입하여 소장가치를 높였다.



### 2. 『알타』(세르히 플로히 지음, 허승철 옮김, 역사비평사, 2020년 3월 01일 출간)

알타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틀어 가장 철저하게 보안에 부처진 비밀이었다.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이라는 3거두가 회담을 통해 획득해야 할 진리품은 세계를 삼켜버린 전쟁의 종식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20세기의 가장 비밀스런 평화회담을 진행했다.

그들은 수백만의 병력을 이동시켰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대

로 전승국의 정의를 분배했다. 이 과정에서 평화의 지속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다른 국가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수백만 명의 난민을 동쪽과 서쪽으로 보냈다. 지정학적 야망과 자존심, 가치 체계의 경쟁, 자신들의 국가가 보유한 가장 영민한 협상가들 사이의 권력 경쟁이 1945년 2월의 여드레 동안 알타에서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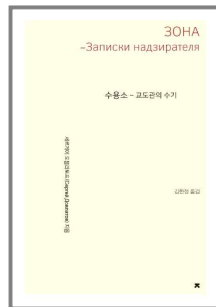
여전히 혁명의 열기가 가득했던 가운데 도모되었던 100년 전의 실패한 기획, 클루게의 표현을 따르자면 이제는 “이데올로기적 고대”가 된 과거의 유령들을 불러내 그들의 실패를 복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책은 현재의 달라진 조건 속에서 과거의 유령이 보내오는 미약한 신호를 감지해내 오늘을 사유하는 유용한 도구로 전유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3. 『제2의 천국, 조지아를 가다』**  
(허승철, 루수단 피르츠칼라바 지음, 심포지아, 2020년 04월 24일 출간)

조지아는 남한의 2/3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에 자리 잡은 나라이지만, 5천 미터가 넘는 절경의 고

산준령과 깊은 계곡, 푸른 강과 수많은 광천과 온천이 국토에 산재해 있다. 조지아를 찾는 한국 사람들이 인문적 관점에서 조지아의 자연, 역사, 문화, 풍습 등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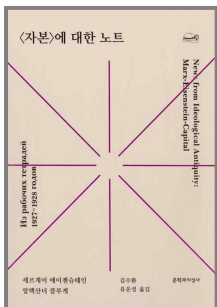


**5. 『수용소: 교도관의 수기』**(세르게이 도블라토프 지음, 김현정 옮김, 지식의만드는지식, 2020년 5월 15일 출간)

도블라토프, 교도소에서 작가의 길을 걷기로 하다

《수용소(Зона)》는 수용소에 얽힌 짧은 이야기 열네 편을 모아 놓은 단편집이다.

도블라토프가 군 전역 직후 1960년대에 쓴 작품부터 미국 이민 후 1980년대에 쓴 작품까지 집필 시기가 모두 다른 열네 편의 단편을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실로 꿰었다.



**4. 『<자본>에 대한 노트』**(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알렉산더 클루게 지음, 김수환, 유운성 옮김, 문학과지성사, 2020년 3월 10일 출간)

문학과지성사의 새로운 인문 에세이 시리즈 ‘채석장’의 첫 책으로, 마르크스의 <자본>을 영화화하려고 했던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작업노트(1927~28년)와 함께 에이젠슈타인의 이 미완의 기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데올로기적 고대로부터 온 소식](2008년)이라는 영화를 만든 알렉세이 클루게가 이 작품의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를 위해 제작한 동명의 소책자(2015년)를 소개한다.

에이젠슈타인이 만들려고 했다는 <자본>은 어떤 영화였으며 왜 실패로 돌아갔는가? 클루게는 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획의 어떤 점에 매혹되었는가? 더 이상 혁명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오늘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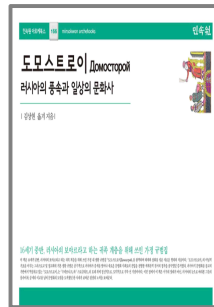
1959년 레닌국립대학교 핀란드어과에 입학한 세르게이 도블라토프는 불성실한 학업 태도로 3학년 때 퇴학을 당한 후 입대 통지서를 받는다. 그렇게 1962년부터 1965년까지 3년간 교도관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되는데, 첫 열 달 동안 복무한 곳이 바로 《수용소》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코미 공화국이다. 레닌그라드 출신으로 교양 있게 자란 20대 초반의 인문학도에게 산전수전 겪으며 범법으로 잔뼈가 굵은 자들이 가득한 수용소의 “끔찍한 조건들(кошмарные условия)”에 적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곳에서 도블라토프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고, “자신을 살려주고”, “일말의 진실이 있는” 시(詩)를 쓰면서 군 생활을 버텼다.

교도관 도블라토프에게 “쓰는 것”은 수용소라는 폐쇄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 내는 숨통이기도 했지만, 막막한 미래를 살아 낼 하나의 빛줄기이기도 했다. 바로 이 교도소에서 작가로의 길을 확정지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작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도 명확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범인(犯人)의 이야기, 범인(凡人)의 이야기

러시아에서는 수용소를 예술적으로 독특하게 형상화한 ‘수용소 문학’이 발달했다.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솔제니친이나 살라모프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스토옙스키(《죽음의 집의 기록》 같은 경우) 역시 수용소 문학에서 언급된다. 도블라토프의 《수용소》는 이 장르의 계보를 잇는 20세기 작품 중 하나다. 기존의 수용소 문학과 도블라토프 작품의 가장 큰 차이는 그가 ‘수용소’를 삶과 동떨어진 특수 공간으로, 그 속에서 생활하는 죄수들을 일반인과 다른 특이한 사람들로 취급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단지 일상과 격리되어 있는 공간인 수용소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전제 위에서 이야기가 진행될 뿐이다. 솔제니친이 수용소를 소름 돋을 정도로 끔찍한 “지옥”이라 할 지언정, 도블라토프는 《수용소》에서 그 끔찍한 정황들을 “생리학 보고서”처럼 생생하게 그려내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 생각에 지옥은 우리 자신들인데 말이죠...” 작가의 관심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머무른다. 작가 자신도 명확히 밝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관심은 삶이지 감옥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자, 괴물이 아니고요.” 《수용소》는 수용소라는 특수 공간에서 살아가는 범인(犯人)의 범인(凡人)적 이야기다. 첫 편지에서부터 《수용소》가 기존의 다른 수용소 작품과 다르다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라스콜니코프와 몸을 팔아 돈을 벌지만 고귀한 신앙을 잃지 않은 소냐를 대비시켜, 이념과 관념의 한계, 그리고 사랑과 진정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한다.



7. 『도모스트로이: 러시아의 풍속과 일상의 문화사』 (김상현 옮김, 민속원, 2020년 7월 08일 출간)

이 책은 16세기 중반, 러시아의 보야르라고 하는 귀족 계층을 위해 쓰인 가정 내 생활 규범집 『도모스트로이』를 완역하여 해제와 삽화를 넣은 새로운 형태의 저술이다. 『도모스트로이』의 이념적 기초를 이루는 그리스도교 및 정교회의 기본 생활 규범은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중세를 벗어나 새로운 문명화 사회로의 진입을 천명한 세계관적 질서의 정착을 꿈꾸었던 증거였다. 러시아식 문명화를 종교의 기반에서 역살하고 있는 『도모스트로이』는 『수데브니크』와 『스토글라프』의 토대 위에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뚝 선 기념비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서구의 갖대가 아닌, 러시아의 눈으로 바라본 그들의 풍속이자, 중세의 이교를 넘어 문명화의 모델을 모색했던 한 사제가 보여준 평생의 노력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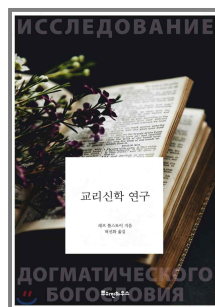
이 책은 16세기 중반, 러시아의 보야르라고 하는 귀족 계층을 위해 쓰인 가정 내 생활 규범집 『도모스트로이』를 완역하여 해제와 삽화를 넣은 새로운 형태의 저술이다. 『도모스트로이』의 이념적 기초를 이루는 그리스도교 및 정교회의 기본 생활 규범은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중세를 벗어나 새로운 문명화 사회로의 진입을 천명한 세계관적 질서의 정착을 꿈꾸었던 증거였다. 러시아식 문명화를 종교의 기반에서 역살하고 있는 『도모스트로이』는 『수데브니크』와 『스토글라프』의 토대 위에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뚝 선 기념비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서구의 갖대가 아닌, 러시아의 눈으로 바라본 그들의 풍속이자, 중세의 이교를 넘어 문명화의 모델을 모색했던 한 사제가 보여준 평생의 노력을 보여준다.



6. 『죄와 벌』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이문영 옮김, 문학동네, 2020년 5월 20일 출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 『죄와 벌』이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188, 189번으로 출간됐다. 도스토옙스키를 세계적인 작가로 끌어올려준 작품으로, 본디 이상주의적 사회주의자였으나 유형생활 이후 사상의 변화를 겪은 작가의 문학세계가 본격적으로 구현된 걸작이다. 실제로 일어난 살인 사건에서 모티프를 따온 이 소설은,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려 살인을 저지른 젊은 대학생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 『죄와 벌』이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188, 189번으로 출간됐다. 도스토옙스키를 세계적인 작가로 끌어올려준 작품으로, 본디 이상주의적 사회주의자였으나 유형생활 이후 사상의 변화를 겪은 작가의 문학세계가 본격적으로 구현된 걸작이다. 실제로 일어난 살인 사건에서 모티프를 따온 이 소설은,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려 살인을 저지른 젊은 대학생



8. 『교리신학연구』 (톨스토이 지음, 허선화 옮김, 푸쉬킨 하우스, 2020년 4월 02일 출간)

『교리신학 연구』는 국내 최초 번역된 톨스토이의 종교 대표 서적이다. 마카리 불가코프의 『교리신학』을 분석하고 자신의 해석과 비판을 더한 톨스토이의 역작으로 기독교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여러 교단 및 이단에 대해 비판적이고 자발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책이다. 종교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읽어야 할 필독서다.

## 공지사항

### ▶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0집, 제71집 투고 안내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0집은 2020년 7월 15일에 투고가 마감되어 8월 25일에 발간되며, 제71집은 10월 15일에 투고가 마감되어 11월 25일에 발간이 됩니다.

### ▶ 논문 투고 규정

가.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온라인 사이트 잼스(<https://russian.jams.or.kr>)를 통해 논문을 제출한다.

나. 투고 논문은 한국어, 러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다.

다. 모든 논문은 ‘아래아한글 2004’ 이상으로 작성하되, 지정된 편집용지 기준 20장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라. 모든 원고에는 편집용지 기준 1장 내외의 외국어(본문과 다른 언어) 초록과 8개 단어 내외의 한글 및 영문 주제어(Keyword)를 첨부한다.

마. 원고 작성의 세부사항은 ‘논문작성 요령’을 따른다.

바.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반드시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 공동집필 논문의 경우 제 1저자(연결 저자 포함)와 공동저자를 구분한다.

아. 특별 청탁 논문을 제외한 모든 논문의 필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자는 논문 투고 시 심사료(6만원)를 지

불하며, 논문이 채택된 경우는 게재료를 납부한다(전임: 20만원, 전임 연구비수혜논문: 30만원, 비전임 게재료 없음, 비전임 연구비수혜논문: 20만원). 심사료 및 게재료는 차후 조정될 수 있다. 타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가 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차. 본인 및 타인의 연구물을 표절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카.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동시에 저작권에 대해 학회의 이용을 허락한다.

\* 계좌번호: 카카오뱅크 3333-14-4155946, 예금주: 이선영

### ▶ <평생 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

존경하는 학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의 지속가능성을 공고히 하고 학회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에 제시된 회비 납부 현황을 참조해주시요.

▶ 정명자 교수님 시모상 조의금을 “부의금”이라는 이름으로 7월 4일 오전 10시 18분경 학회 통장에 200,000(이십만)원 송금해 주신 회원을 찾습니다. 해당하시는 회원은 학회 메일이나 총무이사(서광진, 010-7371-4140)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회비납부

### ▶ 회비 납부 현황

2020년 7월 15일 현재 학회비 납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내주신 학회비는 엄격하

고 꼼꼼하게 관리되어 학회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회비 납부를 하였으나 아래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karusist@naver.com](mailto:karusist@naver.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 2020년 상반기 특별회비 출연해 주신 회원님  
서상범 전 회장 1,000,000원

▲ 2009~2020년 상반기 특별회비를 출연해 주신 회원님

|                      |                   |
|----------------------|-------------------|
| 서상범 전 회장             | 1,000,000원 (2020) |
| 정명자 전 회장             | 1,000,000원 (2019) |
| 김규중 교수               | 1,000,000원 (2019) |
| 변현태 부회장              | 1,000,000원 (2019) |
| 최 선 전 회장             | 1,000,000원 (2019) |
| 문석우 전 회장             | 1,000,000원 (2019) |
| 이대우 전 회장             | 1,000,000원 (2019) |
| 석영중 전 회장             | 1,000,000원 (2019) |
| 조주관 전 회장             | 2,000,000원 (2018) |
| 이규환 전 회장             | 2,000,000원 (2017) |
| 조주관 전 회장             | 2,000,000원 (2017) |
| 정명자 전 회장             | 1,000,000원 (2017) |
| 문석우 전 회장             | 1,000,000원 (2017) |
| 최 선 전 회장             | 3,000,000원 (2016) |
| 이강은 전 회장             | 2,000,000원 (2015) |
| 조주관 전 회장             | 2,000,000원 (2015) |
| 경북대 토대사업팀(연구책임자 김정일) | 500,000원 (2015)   |
| 전명선 전 회장             | 1,000,000원 (2014) |
| 백용식 전 회장             | 1,000,000원 (2014) |
| 변현태 전 부회장            | 1,000,000원 (2014) |
| 김정일 전 부회장            | 1,000,000원 (2014) |
| 조주관 전 회장             | 500,000원 (2013)   |
| 백용식 전 회장             | 1,000,000원 (2012) |
| 석영중 전 회장             | 1,000,000원 (2011) |
| 열린책들                 | 2,900,000원 (2010) |
| 최성호 전 회장             | 1,000,000원 (2009) |

▲ 2017~2020년 평생회비를 한 번 더 내주신 회원님

문석우(50만 원), 백용식(50만 원), 정경택(50만 원), 심성보(50만 원), 윤영순(50만 원), 이명현(30만 원), 이항재(50만 원), 서상범(50만 원), 최진희(30만 원) 김진규(50만 원) (이상 10인)

\*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평생회비 완납(1997년~2020년 7월 15일 현재)

고영랑, 권경준, 김경태, 김규중, 김민아, 김선명, 김선안, 김세일, 김용화, 김정아, 김정일, 김진규, 김진영, 김철균, 김홍중, 김혜란, 김희숙, 문석우, 박선영, 박재만, 박종소, 박현섭, 박현아, 박형규, 박혜경, 박혜옥, 백경희, 백승무, 백용식, 백준현, 변현태, 서광진, 서상범, 석영중, 송인필, 심민자, 심성보, 심지은, 안병용, 안병팔, 안혁, 오원교, 오종우, 유승만, 윤영순, 이강은, 이규환, 이기웅, 이기주, 이남경, 이대우, 이득재, 이명현, 이영의, 이장욱, 이재혁, 이준형, 이지연, 이항재, 이현숙, 이형숙, 전명선, 전병국, 전정옥, 전지용, 정명자, 정보라, 정영주, 조규연, 조미경, 조유선, 조주관, 조혜경, 차지원, 천호강, 최건영, 최병근, 최선, 최성호, 최정현, 최중술, 최진석, 최진희, 한예경, 허승철, 허효영, 홍대화, 홍순미, 홍지연 (이상 87인)

▲ 평생회비 부분납(2020년 7월 15일 현재)

강수경, 민경현, 서선정, 윤새라, 이수현(이상 10만 원), 김태욱, 홍택규(이상 15만 원), 안지영(20만 원), 김보라, 김상현(이상 25만 원) (이상 10인)

▲ 연회비 납부(2020년 7월 15일 현재)

권기배, 박미정, 손재은, 정지윤, 이선영, 임혜영

▲ 기관회원 연회비 납부(2020년 7월 15일 현재)

경북대도서관

▲ 2020년도 회비 납부 안내

2020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입회비는 2만원이며, 정회원의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과 수료생의 경우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학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박사 학위 취득 시까지 연회비 면제). 평생회비는 3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 전임교원 연회비: 5만원
- ▶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 ▶ 전임교원 평생회비: 50만원
- ▶ 비전임교원 평생회비: 30만원

\* 입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성함과 입금 내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연회비, 홍길동평생회비)

\* 계좌번호: 하나은행 864-910211-28107, 예금주: 서광진

한 국 러 시 아 문 학 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311호  
TEL: 053) 950-7160 학회 홈페이지: www.russian.or.kr